

II. 직시 표현의 정의와 유형

1. 직시와 투사

1.1. 직시 표현의 정의와 특성

직시 표현(deixis)이란, 발화 상황에 의해서만 지시체를 갖게 되는 지시어들이다. 다시 말하면, 대화주체 · 시간 · 공간이라는 조건이 발화상황을 구성하는데, 이 발화상황과 연결되어야 지시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시어들이다. 그 예는 “나, 너,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지금”과 같은 것이 있다. 지시어는 아니지만, ‘오늘, 내일, 앞, 뒤, 위, 아래’와 같은 것도 있다.

직시 표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직시 표현은 누가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가리키는 것이 달라진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둘째, 직시 표현은 기본적으로 화자 중심적 기준을 갖는다. 직시적 중심(deictic center)을 구성할 때 무표적인 고정지점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가정된다.

(1) i. 중심인물은 화자이다.

ii. 중심시간은 화자가 발화를 한 시간이다.

iii. 중심장소는 발화시간(입력시)에 화자의 위치이다.

iv. 담화중심은 화자가 발화를 할 때에 존재하는 점이다.

v. 사회적 중심은 청자 또는 지시물의 지위와 신분이 비교되는 화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다.

(1)에서는 모두 직시의 무표적인 고정 지점은 화자 중심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발화할 때 기준이 화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2) 가을에 경복궁에 와 보니까, 네가 전에 했던 그 말의 뜻을 알겠다.

(2)에서 중심인물, 중심시간, 중심장소, 담화중심, 사회적 중심이 다 드러난다. 행위의 주체가 되는 중심인물은 화자이다. 중심시간은 화자가 이 발화를 한 시간 즉 가을의 어느 날이고, 중심 장소는 이 발화를 했을 때의 화자의 위치 즉 경복궁이다. ‘그 말’이라는 지시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점(담화 중심)은 화자의 발화 지점이고, 반말(‘알겠습니다.’가 아닌 ‘알겠다’)을 할 수 있는 기준(사회적 중심)은 상대와 비교했을 때의 화자의 신분(적어도 화자가 청자보다는 낮지 않음.)인 것이다.

셋째, 직시 표현은 투사가 가능하다. 투사(deictic projection)란, 직시적 표현이 자신 중심에서 다른 대화참여자 또는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 중심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말한다. 가령, 화자·청자가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라는 표현은 청자를 기준으로 사용된다.

(3) (갑이 을을 모텔로 사진을 찍는 경우, 갑과 을이 마주 보고 있을 때)

갑: ㄱ. 내 뒤에 있는 삼각대 좀 집어줘

 ㄴ. 뒤로 더 가.

 ㄷ. 뒤에 돌이 있어.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이를 (3ㄱ)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3ㄴ)의 경우, 을은 갑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뒷걸음질을 칠 것이다. 이 경우 갑의 발화체에서 ‘뒤’의 기준은 청자이다. (3ㄷ)의 경우에도 을은 자기 뒤를 돌아볼 것이다. (3ㄱ)은 화자가 기준인 경우이고, (3ㄴ, ㄷ)은 청자가 기준인 경우이다. 다음 절에서 투사에 대해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1.2. 투사

투사란, 관점 이동을 뜻한다. 위치 결정에 있어 화자는 발화상황을 결정하는 “나-지금-여기”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관점을 이동할 수 있다. 사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화자를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바로 화자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 투사인 것이다.

(4) ㄱ. 여기로 와.

 ㄴ. (자판기 누름 버튼 옆의 자막) 여기를 누르시오.

(4ㄱ)의 경우는 화자가 기준이고, (4ㄴ)에서는 ‘여기’라는 표현의 출현이 기준인 경우이다. (4ㄴ)의 경우, 이것을 발화한 화자(자판기를 제작한 사람)가 그 자리에 없으므로, 투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화자가 바뀔 때 직시체계와 관련된 직시적 중심이 바뀌게 된다. 이때 장소, 시간, 사회적 중심 등 전체 세계의 좌표가 통째로 바뀐다.

(5) 갑: 사랑해.

 을: 나도.

(5)에서는 갑의 “사랑해.”와 을의 “나도.”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동사의 주체는 다르

다. 갑은 을이 “나도.”라고 이야기할 때 투사로서 이해해야 한다.
투사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6) 아버지: 사진 보내라고 했더니 왜 내 사진을 보낸 거야?
아들: 저는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죠.

(6)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시의 중심으로 투사하였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직시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투사를 할 때 세계관 전체가 이동을 하므로 투사는 쉬운 개념이 아니다. 투사가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는 다음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끼리 말을 할 때) 나도 난데, 영희도 나야?

(7)은 아이들이 투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투사가 어렵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아이들이 “나/너”의 사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속한 언어공동체의 언어체계를 이해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린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 중심으로 투사를 해서 말한다.

(8) ㄱ. 아빠가 이따가 집에 들어올 때 지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ㄴ. 내가 이따가 집에 들어올 때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8ㄱ)과 같이 말하고, (8ㄴ)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투사는 발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어머니가 어린 철수 앞에서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9) 아빠, 철수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9)는 주변 청자(철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다. 이것은 철수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용한 것이다. 또한 아빠로 하여금 더 쉽게 부정적 응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철수 입장에서 말하면, 아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발화수반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정적 응대를 얻어내기가 더 쉽다.

2. 용법을 기준으로 한 직시 분류

직시적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시적 표현들은 비직시적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직시적 용어의 용법

- ㄱ. 직시적 용법 a. 제스처 용법
 b. 상징적 용법
- ㄴ. 비직시적 용법 c. 조응적 용법
 d. 비조응적 용법

먼저 두 가지의 직시적 용법 즉, 제스처 용법(gesture usage)과 상징적 용법(symbolic usage)으로 구분을 하자. 비직시적 용법 내에서 조응적 용법(anaphoric usage)과 비조응적 용법(non-anaphoric usage)을 구분 지을 수 있다. 제스처 용법과 상징적 용법의 차이점은, 제스처 용법은 해석을 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담화행위의 신체적 작용을 요구하지만, 한편 상징적 용법은 발화 이전에 대화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맥적 좌표만 언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2.1. 제스처 용법

제스처 용법이란, 녹음된 것만 듣고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담화행위에 대한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스처 용법이 실현된 직시 표현을 ‘결함이 있는 연동소’라고 한다. 이것들은 발화상황 안에서 손가락, 시선, 턱 등으로 직접 가리키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다음과 같이 제스처와 함께 사용되는 지시 대명사가 있다.

- (2) ㄱ. 당신, 그리고 당신은 해고되었지만 당신은 아니다./그 사람 말고, 그 사람에게 줘라./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백치다.
- ㄴ. 이것은 진짜지만, 이것은 가짜이다./이 손가락을 다쳤다.
- ㄷ. 그거 좀 집어 줘.
- ㄹ. 거기 앉으세요.

(2ㄱ)의 ‘2:3인칭 대명사’는 신체적인 지시(손가락 지시, 시선 등)와 함께 사용되어야 청자를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다. (2ㄴ)의 ‘이것’은 반드시 제스처가 동원되어야만 청자를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다.

음성을 제스처로 쓸 수도 있다.

- (3) 지금 쏘지 말고, 지금 쏘!

(3)은 음성(강세)를 제스처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상징적 용법

상징적 용법이란, 녹음된 것만 듣고도 적절한 해석이 가능한 직시이다. 제스처 용법과는 대조적으로 직시적 단어의 상징적 용법은 해석을 하는 데에 담화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시간 등의 매개변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즉, 상징적 용법은 발화작용만으로 지시체를 알 수 있다. 상징적 용법이 실현된 표현을 “가득 찬 연동소(embrayeurs lacunaires)”라고 부른다.

(4) ㄱ. 나는 어제 도서관에 안 갔어./만일 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모두 다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당신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ㄴ.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다./철수는 맞은편에 산다./우리는 침팬지가 그 나무 뒤에 있어서 볼 수가 없다.

ㄷ. 우리는 올해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내일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자./나는 그것을 10년 전에 했었다.

(4ㄱ)은 인칭에 관한 것으로 ‘나’, ‘여러분’, ‘당신’은 그 상황에서 잠재적인 청자 집단이라는 발화 상황을 알면 해석할 수 있다. (4ㄴ)은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 도시’, ‘맞은편’, ‘뒤’는 대화참여자의 일반적 위치를 알면 해석할 수 있다. (4ㄷ)은 시간에 관한 것으로 ‘올해’, ‘지금’, ‘전’은 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면 언급되고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다.

2.3. 조음적 용법

조음적 용법이란 어떤 단어가 담화상에서 앞서 나온 단어가 가리키는 똑같은 실체(또는 대응물)인 지시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말(담화)을 가리키는 담화 직시와는 다르다.

(5) 철수는 집에 들어왔고, 그는 불을 피웠다.

(5)는 인칭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는 누가 이 발화를 하건 간에 철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지시어가 조음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직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6) ㄱ.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거기에서 살고 있다.

ㄴ. 나는 손가락을 베었다. 바로 이것이다.

ㄷ. 철수는 시계를 샀다. 이 시계가 문제가 많다./철수는 영희의 맞은편에 산다.

(6ㄱ)에서 ‘거기’는 서울이 어디를 가리키든지 그곳을 지시하는 것으로 조음적 용법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동시에 공간의 직시적 차원에서 ‘여기’와 대조를 이루므로(지금 화자가 서울에 없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상징적 용법도 가지고 있다. 즉, (6ㄱ)의 ‘거기’는 조용적 용법과 상징적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ㄴ)의 ‘이것’은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든 그것을 지시하므로 조용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가락을 가리켜야 하므로 제스처 용법을 가지고 있다. 즉, (6ㄴ)의 ‘이것’은 조용적 용법과 제스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ㄷ)은 ‘장소(거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맞은편’은 시계, 영희의 맞은편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그래서 조용적 용법을 가지고 있으나, ‘이’가 ‘그’에 대비되고, ‘맞은편’이 대화 참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직시적) 용법이 되기도 한다.

2.4. 비조응적 용법

비조응적 용법이란, 지시어의 비직시적인 표현이 조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 (7) ㄱ. 나는 인것저것을 했다./자동차 뒷유리창에 무언가 붙어 있었다.
 ㄴ.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다.

(7ㄱ)은 장소에 관련된 지시어로서, ‘이/저’, ‘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시적 용법이 아니고, 앞서 나온 단어를 가리키지 않으므로 조용적 용법도 아니다. 따라서 비조응적 용법이다. (7ㄴ)은 시간에 관련된 지시어로서, ‘지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시적 용법이 아니고, 앞에 나온 단어를 가리키지 않으므로 조용적 용법도 아니다. 따라서 비조응적 용법이다.

지시어가 비조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직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8) 이이가 아버님께 또 잘못을 했나 봐요.

(8)의 ‘이이’는 인칭에 관련된 지시어로서, 남편이나 애인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직시적이며 앞에 나온 단어를 가리키지 않으므로 조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이’와 거리상 대조된다는 점에서 직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3. 직시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레빈슨(1983)은 직시(deixis)의 전통적 범주는 인칭(person), 장소(place), 시간(time)에 담화직시(discourse or text deixis)와 사회직시(social deixis)를 추가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5가지 주요 범주 즉, 인칭·시간·장소·담화·사회 직시체계들을 차례로 다루도록 한다.

3.1. 인칭직시

인칭직시란, 대화참여자를 지시하는 역할을 문법화한 것이다. 인칭 직시의 기본적인 문법적 구별은 1·2·3인칭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인칭 범주는 화자 자신이고, 2인칭은 청자에 대한 화자지시의 문법화이다. 그리고 3인칭은 발화에서 화자나 청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지시를 문법화한 것이다. 인칭을 성분분석을 한다면 1인칭에 대해서 [+S(화자포함)], 2인칭은 [+A(청자 포함)], 3인칭은 [-S, -A(화자와 청자를 제외시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3인칭은 발화화맥에서 특정한 대화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2인칭과 다르다.

3.1.1. 1인칭

1인칭에서는 1인칭 복수 ‘우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1인칭 복수 ‘우리’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등 특수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 이상의 3인칭 실체를 뜻하는 식으로 복수 화자를 뜻하지 않는다. 즉,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와 ‘청자가 제외되는 우리’에 대응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다. 이 구분이 발화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1) ㄱ. 이 일은 우리가 할게요.
- ㄴ. 우리 영화관에 가자.
- ㄷ. ?우리 내일 너를 만나러 가자.

(1ㄱ)은 ‘우리’에 청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ㄴ)은 ‘우리’에 청자가 포함되어 있다. (1ㄷ)은 ‘우리’에 청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청유형에서는 ‘우리’가 청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가 들어간 장소 직시어가 1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 (2) ㄱ. 이쪽, 이편, 이녀, 이
- ㄴ. (통화할 때) 음식은 이쪽에서 준비를 할게요.

3.1.2. 2인칭

2인칭은 청자를 가리키는데, 청자는 대화 참여 여부에 따라서 중심 청자(addressee)와 주변 청자(hearer)로 나누어진다. 중심 청자란, 대화에 참여하는 청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주변 청자란, 대화에서 청자의 역할을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화자가 중심 청자를 이용하여 주변 청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3) ㄱ. (임신한 여자가) 아가야,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지 않니?

ㄴ.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엄마가) 여섯 살이라고 말해야지.

(3ㄱ)은 화자인 아내가 중심 청자 ‘아가’를 이용하여 주변 청자 ‘남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3ㄴ)은 화자인 엄마가 중심 청자 ‘아이’를 이용하여 주변 청자 ‘아주머니’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장소 직시어가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4) ㄱ. 그쪽, 그편, 그녜, 거기, 그곳, 그 집

ㄴ. 댁

(4ㄱ)의 ‘그 집’은 2, 3인칭이 모두 가능하다.

3.1.3. 3인칭

장소 직시어가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5) ㄱ. 저 집,

ㄴ. 안(사람/주인), 바깥(양반/주인)

(5ㄱ)은 ‘저’가 들어간 것이고, (5ㄴ)은 장소표현이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예이다.

3.2. 시간 직시

시간직시체계는 발화 시간(혹은 전달문을 쓴 시간)과 관련된 시점과 기간을 문법화한 것이다. 시간 직시는 입력시와 수신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필모어(Fillmore, 1971b)에 의하면 기호로 옮기는 시간을 입력시(coding time)라고 부른다. 입력시는 받아들이는 시간 즉 수신시(receiving time)와 다르다. 발화(또는 표기) 순간 또는 기호로 옮기는 시간과 수신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무표적 직시 중심을 가정할 때 표준발화의 상황에서 수신시는 입력시와 같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의 동시성(deictic simultaneity)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를 때는 시제용법, 시간 부사 그리고 다른 시간 직시적 형태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띤다. 시간 직시어의 예로는 ‘지금’, ‘그때’, ‘바로’, ‘최근’ 등과 같은 시간 부사가 있다.

3.2.1. 입력시와 수신시가 같음.

‘지금’은 화자가 발화를 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ㄱ. 지금 방아쇠를 당겨라!

ㄴ. 나는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6ㄱ)은 시간 직시의 제스처 용법이고, (6ㄴ)은 시간 직시의 상징적 용법이다.

‘그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상징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나, 제스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산 스포츠카를 가리키면서 말한 다음을 생각해 보자.

(7) (10년 전 산 스포츠카를 가리키면서) 나는 그때 단지 어린아이였다.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단어는 날짜로 시간을 나눈다. 대략, ‘오늘’은 입력시를 지닌 하루의 기간을 말하고, ‘어제’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하루 기간을 선행하는 하루의 기간이다. 그러나 ‘어제, 오늘, 내일’은 관련된 기간 내에서 어떤 시점을 지시할 수도 있다. 즉, 전체기간 자체를 지시하거나, 시점을 지시하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8) ㄱ. 어제는 수요일이다.

ㄴ. 철수는 어제 주먹으로 경민이를 때렸다.

(8ㄱ)의 ‘어제’는 전체기간 자체를 지시한 것이고, (8ㄴ)의 ‘어제’는 관련된 기간 내에서 어떤 시점을 지시한 것이다.

‘이번, 다음, 저번’ 등의 직시적 수식어와 비직시적 명사(또는 척도 단어)로 구성된 형식도 시간 직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X가 ‘주, 달, 해’를 나타낼 때 ‘이번 X’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단위 X를 지시한다. 그리고 ‘다음 X’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단위 다음에 나오는 단위 X를 지시한다.

Y가 보다 큰 달력상의 기간 Z에 포함된 단위인 경우(1월, 2월, ..., 월요일, 화요일, ... 등)에 ‘이번 Y’는 입력시를 지닌, 상위의 기간 Z에 포함된 단위 Y를 의미한다. 즉, ‘이번 8월’은 현재의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시를 지닌 그 해의 8월을 뜻한다. 그리고 ‘다음 Y’는 입력시를 지닌, 상위의 기간 Z의 이후 시기를 의미한다. ‘다음 목요일’은 입력시를 포함하는 주 다음에 나오는 주의 목요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요일만 사용되는 시간적 직시를 보도록 한다. 아래를 목요일에 말한다면, 아래의 목요일은 돌아오는 목요일(또는 좀 먼 목요일)만을 지시할 수 있다. 이번 주 목요일을 의미했다면, 화자는 ‘오늘’로 말했어야 한다.

(9) 나는 너를 목요일에 만날 거야.

만일 (9)를 수요일에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내일’을 써야 할 것이다.

3.2.2.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름.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르면 중의성이 나타난다. 아래는 입력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수신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0) 나는 한 시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10)은 메시지를 남긴 경우이다. 입력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입력시가 10시일 때 한 시간 후는 11시가 될 것이다. 수신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신시가 11시일 때 한 시간 후는 12시가 될 것이다.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를 경우, 화자는 수신시에 투사하여 발화할 수 있다.

(11) ㄱ. 이 프로그램은 4월 1일 수요일 오늘 녹화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ㄴ. 이 프로그램은 4월 1일인 지난 주 수요일에 녹화되어서 오늘 방영될 예정입니다.

(11)은 보도기관 계획의 사전 녹음이다. 사건의 결정은 직시중심이 (11ㄱ)처럼 화자와 입력시에 있는지 또는 (11ㄴ)처럼 청자와 수신시에 투사되는지에 달려 있다.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를 경우, ‘지금’의 의미는 입력시가 아닐 수 있다.

(12) (전화 응답기에) 저는 지금 외출 중이오니, 메모를 남겨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12)의 메시지는 화자가 청자의 해독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 시간을 청자의 수신시로 이동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메시지에서의 ‘지금’은 수신시를 가리킨다.

이번에는 직시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는 기준을 입력시로 했느냐, 수신시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표현이다.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 친구의 생일이 이틀 후라고 가정해 보자. 편지가 보통 1주일이 걸려 도착하는 거리라면 당연히 그 친구는 생일보다 닷새 정도 후에야 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과 같은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관광지의 벽에 (14)와 같이 쓴 말을 본다.

(13) ㄱ. 생일을 잘 보내길 바라.

ㄴ. 생일을 잘 보냈길 바라.

- (14) ㄱ. 오늘 나 여기 왔다 간다.
 ㄴ. 오늘 나 여기 왔다 갔다.

(13ㄱ)은 입력시를 기준으로 쓴 것이고, (13ㄴ)은 수신시를 기준으로 쓴 것이다. 보통 생일 카드를 쓰는 경우, 화자가 편지를 쓰는 날짜보다는 상대방의 생일을 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투사한 것이다. (14ㄱ)은 입력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4ㄴ)은 수신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4ㄴ)은 화자가 발화기준을 자신이 아닌 수신자를 기준으로 투사하여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이다.

입력시와 수신시가 언제이든 무관한 경우에는 시제를 붙이지 않는다. 절대적 진리가 그런 경우인데, 이는 입력시과 수신시가 같건 다르건 사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제를 붙이지 않는다.

- (15) ㄱ. 2 더하기 2는 4이다.
 ㄴ. 이구아나는 개미를 먹는다.

3.3. 장소 직시

장소직시체계는 담화행위에서 대화참여자의 위치와 관련된 공간적 장소를 문법화한 것이다. 장소 직시의 기본적 중심은 화자가 발화상황에 위치한 그 자리이다. 장소직시체계는 거리에 관련된 것, 방향, 위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3.3.1. 거리

대부분의 언어에서 장소 직시어는 근거리(proximal)와 먼 거리(distal) 사이에 구분, 즉 거리에 의한 구분을 문법화하고 있다. 즉, 영어의 ‘this, that’처럼 정해진 직시적 중심(입력시에 화자의 위치)으로부터 단순히 동심원 거리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는 보다 더 세분화된 구분을 하고 있다. 한국어의 지시사 ‘이것, 그것, 저것’은 거리 뿐만 아니라, 대화참여자의 역할의 대비에 따라 구분된다.

(18) 한국어와 터키 어의 지시사 체계

		한국어	터키 어
근칭	화자에게 가까운 것	이것	bu
	청자에게 가까운 것	그것	o
원칭	화자와 청자에게서 먼 것	저것	su

‘여기’의 상징적 용법은 입력시에 화자위치를 포함한 화용론적으로 주어진 장소단위로 해석될 수 있다. 제스처 용법은 입력시에 화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로서 제스처에 의한 장소

로도 해석될 수 있다.

- (19) ㄱ. 나는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ㄴ. 여기에 놓으시오.

(19ㄱ)은 상징적 용법이고, (19ㄴ)은 제스처 용법이다.

‘내’가 있는 곳이 ‘여기’라는 사실은 화자의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가령,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숨을 사람들을 부르며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대해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경우, 이는 가장 명백한 진실이면서도 다만 목소리의 방향이 주는 정보 외에 술래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